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9. 6 | Vol. 294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기해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6월 28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8월 15일에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입재 6월 28일(음. 5. 26)
초재 7월 4일(음. 6. 2)
2재 7월 11일(음. 6. 9)
3재 7월 18일(음. 6. 16)
4재 7월 25일(음. 6. 23)
5재 8월 1일(음. 7. 1)
6재 8월 8일(음. 7. 8)
방생 8월 11일(음. 7. 11)
회향 8월 15일(음. 7. 15)

(재일은 매주 토요일입니다.)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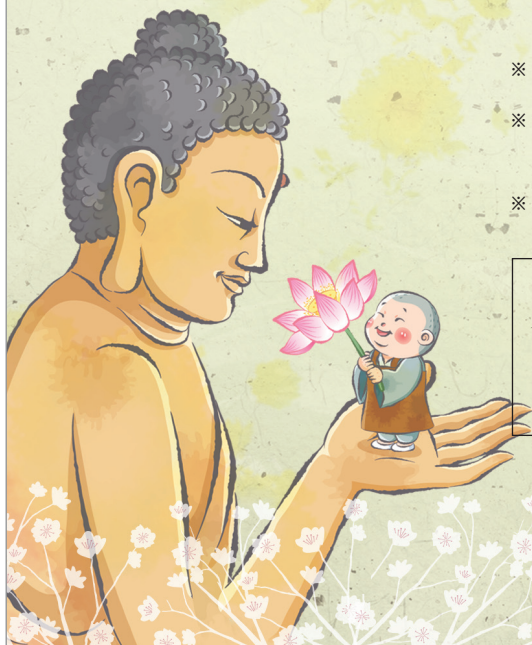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서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한 가족당)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 의 법왕사 766-3747, 9088

- ※ 동창금은 영가 1위당 1만원입니다.
-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영혼결혼식 접수받습니다.



영혼결혼식은 생전에 결혼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젊은 남녀 영혼들을 사후에 저승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어 사람으로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인 결혼이라는 일생의례를 지나게 해주는 의식입니다.





Vol. 294호

04 깨침의 향기

믿음은 도(道)의 근원(根源)이요 공덕(功德)의 어머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06 비슬산방

완전한 행복은 있는가? · 실상 주지스님

08 부처님이야기 – 초기원형불교 자료에 근거(40)

고마따 부처님 전생의 십바라밀 이야기(8) · 영일스님

12 명찰 순례

태백산맥 정기 서린 천년고찰 봉화 축서사(鷲棲寺)

16 해오름어린이집

아이다움을 찾아주는 어린이집 · 우지민(해오름어린이집 원장)

18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어깨 힘줄 파열에 대한 오해

22 화보 – 2019년 부처님오신날

24 법왕사소식

27 법왕사게시판

32 해오름소식

33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s.or.kr | 발행일_불기 2563(서기 2019)년 6월 1일 발행 | 통권_294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영일, 상철, 자행, 자윤, 박창모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모든 종교는 진실한 믿음에 그 생명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을 세우지 않는 우리 불교도 진실한 믿음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도행(求道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최상승 경전인 ‘화엄경(華嚴經)’에 이르기를 “믿음은 도(道)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信爲道源功德母). 일체(一切)의 선근(善根)을 길러 낸다(增長一切諸善法)” 고 하였으며, ‘유식론(唯識論)’ 에도 “믿음은 물을 맑게 하는 구슬인 수청주(水淸珠)와 같아서 능히 흙탕물을 맑게 한다.” 고 하였습니다.

영명(永明) 선사께서 이르기를, “신이불해(信而不解)하면 증장무명(增長無明)이요, 해이불신(解而不信)하면 증장사견(增長邪見)이라. - 믿기만 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음(無明)만 더하게 하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사견(邪見)만 더한다” 고 하였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實有佛性)”의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본래의 부처로 천진(天真)한 자성(自性)이 사람마다 구족(具足)하며 열반(涅槃)의 묘한 바탕(妙體)이 뚜렷이 이룩되어 누구든지 잠들어 있는 불종자(佛種子)를 일깨우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인과(因果)를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다.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고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설사 백천만겁이 지난다 해도 지은 업(業)은 없어지지 않으며 인(因)과 연(緣)이 만날 때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율(戒律)을 엄히 지켜야 합니다. 계율은 무상보리(無上菩提)의 근본입니다. 계(戒)로 인하여 선정(禪定)이 생기고, 선정으로 인하여 지혜(智慧)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심(信心)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삼계(三界)의 고해(苦海)에서 벗어나 생사윤회에서 해탈(解脫)하려면 불퇴전(不退轉)의 신심(信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금강경(金剛經)’에 이르기를 “한 생각이 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되면 여래(如來)는 이 중생(衆生)들이 이러한 한량(限量)없는 복덕(福德)을 얻은 줄 다 알고 다 본다”고 하였으며,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이르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자곡지심(自曲之心)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꼭 부처님의 씨앗(佛種子)을 이어서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수기(受記)를 받을 것이며, 가령 어떤 사람이 능히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가득한 중생을 모두 교화하여 십선(十善)을 행(行)하게 한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밥 먹을 동안에 이 법을 바로 생각한 공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심(信心)이 세워졌다면 한가지 수행방법을 정해 계속 정진해야 합니다. 참선도 좋고

염불도 좋고 주력(呪力)도 좋고, 절도 좋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초지일관(初志一貫) 정진해야 합니다. 설사 금생(今生)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생(來生)에는 반드시 성불(成佛)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세우고 수행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첫걸음부터 바르게 가야합니다.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첫 마음이 내는 믿음입니다. 만일 첫걸음이 잘못되면 모든 노고(勞苦)가 도로(徒勞)에 그치고 말 것이니 선지식(善知識)의 가르침을 받아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삼조(三祖) 승찬 대사께서 신신명에서 “호리유차(豪釐有差)하면 천지현격(天地懸隔)이라. - 털끝 만한 차별(差別)만 있어도 하늘과 땅처럼 사이가 갈라지나나...”라고 하신 것도 이를 경계(警戒)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영가(永嘉) 선사께서 이르기를,

“무명실성(無明實性)이 즉불성(卽佛性)이요, 환화공신(幻化空身)이 즉법신(卽法身)이다.

무명(無明)의 본성품(本性品)이 바로 부처의 성품(性品), 허깨비 같은 빈 몸이 곧 진리(眞理)의 몸(法身)이라 하였습니다.

중생(衆生)은 본래부터 부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불퇴전(不退轉)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진면목(本來眞面目)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행복은 있는가?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완전한 행복은 찾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무지개를 찾는 소년이 결국 무지개를 잡지 못하듯이 인생도 후회스럽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는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칠십이 다 되도록 완벽한 아내를 찾고 또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래, 그동안 찾아본 결과 완벽한 여자가 있었나?”

“꼭 한 번 있었지.”

“그러면 왜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나?”

그러자 그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매우 어려웠어. 그 여자 역시 완벽한 남편을 찾고 있었으니까.”

완벽한 행복을 찾기 위하여는 스스로 번뇌를 완전히 벗어 버려야만 합니다.

종교를 믿고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자를 믿는 종교는 절대

자를 믿고 그 가르침 안에서 생활하므로 해서 절대자 가까이 태어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고도 하고 ‘하나님 오른쪽에 태어난다’ 고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보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원인을 좋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불교의 목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수행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 수행자가 명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모든 것은 변하니(諸行無常),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라(是生滅法)”는 말이 들려 왔습니다. 그 말을 음미해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가 둘러보았으나 그 말을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한 쪽에 사람을 잡아먹고 산다는 흉악한 얼굴을 한 나찰 귀신만이 웅크리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고개를 가웃거리면서도 수행자는 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에게 나머지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찰귀신은 배가 고파 헛소리를 한 모양이라며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이에 머물지 않고 나찰귀신에게, “배가 고프면 나를 먹으라.” 하며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나찰귀신은, “나고 죽음이 없다면(生滅滅已) 고요해서 즐거움이 되리라(寂滅爲樂)”고 나머지 계승을 읊었습니다.

이에 수행자는 진리를 알게 해주었으므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무 위에서 떨어져 내

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찰귀가 제석천으로 변해서 수행자를 받아 모시고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수행자가 훗날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모든 존재들 중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어진다면 번뇌가 다 없어진 고요한 세계로서 그곳은 항상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목적은 바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없애고 고요한 즐거움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도(道)라고 하는 것은 “눈 위에 찍힌 사슴의 발자국”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그 자국을 따라 사슴을 잡듯이 구도자는 스승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쉽없이 깨달음이라는 사슴이 나올 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어느날 젊은이가 성자(聖者)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자는 대답 대신 그 젊은이를 붙잡아 깊은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젊은이가 숨이 막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야 끄집어내고는, “네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공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같이 신을 찾을 때에만 너는 신을 발견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온 정신과 혼신의 힘을 다해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빠알리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한 고따파 부처님 전생의 십바라밀 이야기(8)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 연재글(제39편)에서는 고따파 붓다께서 현겁전생의 한 시기에 '상카빨라' 라는 나가왕으로 태어나 온갖 잔인하고 폭력적인 취급을 받으면서 끌려가도 화를 내지않고 견뎌내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상의 지계 바라밀'을 실천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고따파 붓다께서 현겁전생의 한 때에 '유단자야yudhañjaya'라는 왕자였을 때, 태양이 비추어 이슬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온갖 지위와 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나라와 국민들을 버리고 출가하는 내용을 살펴본다. '불종성경과 '자따까'의 주석서[KN-Bvm 1(ratana-caṅkamaṇa-kaṇḍa), vs. 76-77-atk.] = [KN-jā-atk-nidānakathā- (1. dūre-nidāna-kathā)]에서는 최상위 출리바라밀의 예로써 '쫄라수따소마 자따까'[KN-jā 17

(cattālīsa-np), n. 525(cūlasutasoma-jātaka)]'를 들고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생 바라밀행장'에 포함되어 있고, 최상위 출리바라밀과 비슷한 정도의 내용을 담고있는 '유단자야yudhañjaya' 왕자의 전생바라밀행장을 다룬다.

[전생바라밀행장(Cariyā-piṭaka)]¹⁾

1. 자따까 주석서에 나오는 배경 이야기²⁾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시던 한 때, 자신의 '위대한 출가(mahā-abhinikkhamana)'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느날 비구들이 설법당에 모여서 부처님

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도반 여러분, 만약 십력(세존)께서 집에 머물렀다면, 모든 세상의 전륜성왕이 되어 칠보(바퀴, 코끼리, 말, 보석, 여자, 재정관, 고문관)를 갖추고, 네가지 힘(아름다움, 수명, 건강, 대중적 인기)을 소유하며, 번창하고, 일천명의 아들들에 둘러쌓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존은 이와같은 찬란한 부를 버리고, 감각적 쾌락의 결점을 보신 후, 한 밤중에 찬나마부와 함께 간따까라는 말에 올라타서 [까빨라와투성을 떠난다. 그리고 아노마 강둑에 이르러 식발하고 출가한다. 이어서 6년간 고행을 하고 정등각을 성취한다."라고.

이 때 스승(세존)께서는 이들 비구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길 :

"비구들이여,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가?"라고 한다.

그러자 비구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린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단지 지금만 위대한 출가를 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또한 [직경]

12요자나(130km) 정도 되는 바라나시 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였다." 라고.

그리고 이어서 세존께서는 과거생의 한 때에 있었던 출가와 관련된 자따까를 말씀하신다.

[현겁전생의]한 때, 람마(ramma)라는 도시에 샵바닷따(sabbadatta)라는 왕이 있었다.

이 '바라나시'라는 도시는 :

우다야자따까[udaya-jātake (KN-Jā11, n. 458)]에서는 '수룬다나시로 불렀고, 쥘라수파소마자따까[cūlasutasoma-jātake (KN-Jā 17, n. 525)]에서는 '수닷사나시로 불렀고, 소난다자따까[sonananda-jātake (KN-Jā20, n. 532)]에서는 '브라흐마왓다나시로 불렀고, 칸다할라자따까[khaṇḍāhala-jātake (KN-Jā 22, n. 544(candakumāra-jā)] 뿔과와따시로 불렀고, 상카라자따까[saṅkhabrahmaṇa-jātake (KN-Jā10, n. 442)]에서는 '몰라니시로 불렀고, 지금의 여기 유단자야자따까[yudhañcaya-jātake]에서는 '람마시로 불렀다.

1) 여기의 원문자료는 6차결집본의 로마자 온라인 출판본을 그 근거로한다: CST4: KN-Cp.2:10(saṅkhapāla-cariyā), vs.85-91. 그리고 번역은 직역과 의역을 혼용한다. 주석서[KN-Cp-aṭṭk-nidānakathā]에 의하면 이 '전생바라밀행장(Cariyā-pitaka)'은 붓다께서 정각후 최초로 자신의 고향인 까빨라와투를 방문할 때 '반안나무숲(nigrodha-ārāma)'에서 이중신통을 보인후 석가족을 위해 '불종성경'을 설하고, 이어서 사리불존자가, '붓다가 되는 실천행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자, 이에 답하기위해 설한 것이라고 한다.

2) 여기의 '유단자야 왕자'의 출리바라밀행에 대한 배경이야기는 자따까의 주석서[KN-Jā 11(ekādasaka-np), n. 460(yudhañjaya-jā)-aṭṭk]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전생바라밀행장의 주석서[KN-Cp.3:1 (yudhañjaya-cariyā)-aṭṭk]는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언급한다.

이와같이 때때로 '바라나시'라는 도시는 그 이름이 바뀌게된다. 이 '탐마'라는 도시(현재 인도의 바라나시)의 삼바닷따왕에게는 일천 명의 아들들이 있다. 이들중에서 보살은 큰 아들로 태어난다. 왕은 아들들 중에서 큰아들인 '유단자야'(보살)에게 총독의 자리를 주게된다.

유단자야보살은 총독이 된 이후에 매일 매일 큰 보시(mahadana)를 행한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날 유단자야 보살은 아침일찍 훌륭한 수레에 올라타고 휘황찬란하게 숲으로 유람을 떠난다. 가는 도중에 그는 나뭇끝에, 풀 끝에, 나뭇가지 끝에, 그리고 거미줄망 등에 마치 진주알로 엮어진 그물망에 매달린 것과 같은 이슬방울들을 보게된다. 그리고 마부에게 물기를 :

"마부여, 이것은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부는 답하기를 :

"왕이시여, 이것은 겨울에 떨어지는 이슬방울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유단자야 보살은 그 소리를 듣고, 유원지에 도달하여 유람을 즐긴다. 그리고 저녁에 성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그 이슬들을 보지 못하게된다. 그리고 다시 마부에게 묻는다:

"마부여, 그 이슬방울들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러자 마부는 대답한다 :

"왕이시여, 그 이슬방울들은 태양이 떠오르

면 모두 부서지고, 땅에 떨어집니다."라고.

이 소리를 들은 왕은 이렇게 생각한다 :

"이 중생들의 생명은 형성된 것이어서 풀끝의 이슬방울과 같은 것이다. 나는 '병들투, 늙음, 죽음에 의해 억압되지 않는 방법을 부모님에게 물은 후, 출가를 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슬방울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마치 삼계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면서 자기 집에 들어간다. 유단자야 보살은 집에 온 후에, 옷을 장식하고 왕실에 앉아있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서서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때 아버지 왕은 처음에 아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신이 모두 충족시켜줄 것이니 출가하지 말라고 유단자야 보살의 출가를 극구말린다. 그리고 어머니도 와서 출가를 말린다. 그러나 이미 이슬방울과 같은 자신의 상태를 알아버린 유단자야 보살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한다.

마침내 아버지 왕은 유단자야보살의 출가를 허락한다.

그런데, 이때 유단자야 보살의 동생인 '유디틸라'왕자가 자신도 출가할 것이니 허락해달라고 한다. 아버지 왕은 보살 동생의 출가도 허락한다. 어머니는 이것을 알고, 마치 람마시가 텅 빈것과 같은 허전함을 느끼며 슬퍼한다.

유단자야 보살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후, 동생을 데리고 성을 떠난다. 그리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낸 후,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간다. 거기에서 적당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성스러운 출가생활을 하면서, 선정과神通력을 성취한다. 그리고 나무뿌리와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고, 드디어 죽은 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고자 한다.

세존은 이 자따까 이야기를 마친 후, 이 자따까이야기에 나오는 부모님은 지금의 까뻬라와투의 왕의 친족들이며, 동생인 유디틸라 왕자는 아난다이고, 유단자야 보살은 자신이라고 설명하신다.

[자따가 주석서 배경이야기 끝]

2. '유단자야'왕자의 [출리바라밀]행(yudhañjaya-cariyā)³⁾

[v. 1]

내가 [현겁전생의 어떤 생애 한량없는 명성을 가진 '유단자야' 왕자였을 때 ;
이슬방울이 태양빛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에 동요되었다.

[v. 2]

[그러한 출가의 마음의 동요가 강해지자, [마음의 전율은 더욱 더 커졌다 ;
그러자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출가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v. 3]

부모님은 도시와 왕국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려 [이렇게 나에게 간청하였다 :
'아들아, 이제 풍요롭고, 번창하는 이 큰 왕국을 돌보거라.'

[v. 4]

왕과 처첩들, 시민들, 그리고 왕국의 사람들이 모두 동정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
나는 아무런 기대없이, 그들을 뒤에 남기고 떠났다.

[v. 5]

모든 국토를 다스리는 왕위와 친척들, 수행원들, 그리고 명성을 버리고 ;
나는 깨달음을 위한 실천수행이외의 [다른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v. 6]

내가 부모님을 싫어한 것도 아니고, 또한 큰 명성을 싫어한 것도 아니었다 ;
단지 일체지에 대한 나의 열망 때문에 왕국을 버린것이다.

〈끝〉

3) 이 계송의 번역은 전생바라밀행장을 근거로 한다. [KN-Cp.3:1(yudhañjaya-cariyā)]. 이에 상응하는 자따까는 같은 제목으로 전해진다. KN-Jā 11(cattāḷisa-np), n. 460(yudhañjaya-jā).



축서사 전경

태백산맥 정기 서린 천년고찰 봉화 축서사(鷲棲寺)

축서사(鷲棲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本寺)인 고운사(孤雲寺)의 말사(末寺)로 태백산맥이 남쪽으로 굽이쳐 내려오다가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번지 문수산(文殊山) 기슭, 해발 800미터 고지의 명당에 자리잡은 천년고찰이다.

축서사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이 있고 서쪽에는 저 멀리 명산 소백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으며, 남쪽에는 청량산(淸凉山)이 우뚝 서 있고 안산으로는 화산(華山)이 침착하게 서있다. 해발 1,206m의 문수산은 한때는 수많은 사찰과 전설이 풍성한 명산이다.

축서사(鶻棲寺)란 이름은 독수리 축(鶻, 깃들
서(棲), 즉 독수리가 사는 절이라는 뜻으로 독
수리는 지혜를 뜻하며 지혜는 바로 큰 지혜를
가진 문수보살님을 뜻한다. 또 다른 가설로 험
준한 뒤쪽 산세가 풍수지리학상으로 독수리
의 형국이므로 축서라 명명했다고 보는 이도
있다.

축서사는 신라 제30대 문무왕 13년(서기
673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절로서 창건 연기
설화에 의하면 문수산 아래 지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스님이 어느 날 밤 지금의
개단 초등학교 앞산을 바라보니 휘황찬란한
빛이 발산되고 있어 광채가 나는 곳으로 달
려갔더니 한 동자가 아주 잘 조성된 불상 앞
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 그 동자는 청
량산 문수보살이라며 구름을 타고 사라져 버
리고 불상만 남았다. 훗날 이 소식을 전해들
은 의상대사가 불상을 모실 곳을 찾아다니다
가 현 대웅전 터에 법당을 짓고 불상을 모시
니 축서사의 창건이다 이때 산 이름도 문수보
살이 출현하였다 해서 문수산이라 한듯하다.
3년 뒤에 의상대사께서는 축서사에서 40여리
떨어진 봉황산 중턱에 대찰을 세웠으니 동국
화엄제일 도량인 부석사이다. 흔히 축서사를
부석사의 큰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웅전 상량문에 의하면 이 절은 광서(光
緒)7년(서기 1875년)에만 해도 대웅전, 보광전,
약사전, 선승당, 동별당, 서별당, 청련당, 백화당,
범종각등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고, 산내 암자

만도 상대, 도솔암, 천수암등 세 개나 되었고
대중이 44명이 살았으며 대웅전 본존불에 기
도하면 영험이 있다하여 기도처로 유명한 사
찰이기도 하였으나, 조선조 말기 을사보호조
약(서기1905년)과 정미7조약(서기1907년)으로
왜구의 속국화되는 것을 분개하여 전국적으
로 의병이 봉기하여 항일투쟁할 때 이 곳에도
일본군이 의병을 토벌하기 위한 작전으로 방
화하여 대웅전 1동만 남기고 전소시켰다.

석조비로자나부처님 (보물 제995호)

보광전 석조비로자나불 불신의 높이 108m, 어
깨넓이 55m, 머리높이 31cm, 대좌높이 96cm
로 8각 대좌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는 이 불상
은 신라시대(9세기경) 많이 조성되었던 일련의
비로자나불 좌상의 모습과 비슷하다.

신체는 곧고 반듯한 어깨, 넓은 가슴, 넓게
벌린 무릎과 함께 현실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분명하며 통견(通
肩)의 법의는 옷 주름이 등간격의 평행의 문선





축서사 전경

으로 이루어져있고 몸에 밀착되어 신체윤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옷 주름은 자권인(智拳印)을 결한 양쪽 팔에 걸쳐 양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무릎사이의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진 옷 주름은 다른 불상에서와는 달리 물결식의 주름으로 표현된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행 계단식 의문(衣紋)과 함께 9세기 후기의 불상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화사 비로자나불좌상(보물 244호), 각연사 비로자나불상(보물 433호)등과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불상으로서 당시의 조각기법 및 신앙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발(螺髮)의 머리에는 커다란 육계가 표현되어 있으며, 가는 눈, 활형의 눈썹, 일자로 다문 입으로 인해 얼굴에는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불상 뒤에는 정기유(正己酉)라는 연대가 보이는데 불상을 보수했던 연대로 추정된다. 이 연대가 조선 영조 5년(서기 1729년)인

것으로 볼 때 200여년 전에 보수가 된 것 같다. 대좌(臺座)는 신라하대에 유행한 8각 대좌로서 상중하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대석에는 8각에 사자 1구씩을 양각했고 중대에는 공양상 및 합장한 인물상 상대에는 화문(花紋), 연화문(蓮花紋)등이 조각되어 있다. 뒤에는 화려한 꽃무늬나 불꽃무늬의 목조광배는 상부만 남아있다.

괘불탱화(보물 제1739호)

지금부터 200여년 전인 서기 1768년 무자년에 점안한 괘불로서 크기(가로 550m, 세로 880cm, 면적 48.4제곱미터)는 대형이다.

입상 아미타불로서 성스러운 존안과 특이한 육계, 풍만한 가슴과 부처님 상으로 보기 드물게 화려한 의상 및 특이한 후광배는 불자로 하여금 신심을 돈독하게 하고 발심케 한다. 큰 회화이면서도 적당한 구도와 섬세하고 뛰어난 솜씨는 관람자를 감탄케 한다.



괘불탱화(보물 제1739호)



석등(문화재자료 제 158호)

석등(문화재자료 제158호)

석등은 높이 2.3m쯤 되는데 원래는 석탑앞에 있었으나 지금은 대웅전 앞으로 옮겼다. 귀퉁이 장식된 복련하대석(覆蓮下臺石), 간주(幹柱) 중대석, 상대석으로 구성된 대석위에 화사석(火舍石)이 옮겨져있다.

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157호)

이 석탑(石塔)은 선방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층기단과 3층 옥개석(屋蓋石) 이상이 없어졌으나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전형적인 3층 석탑의 뛰어난 모습을 남기고 있다. 하층 기단부(基壇部)는 갑석(甲石)만이 원 위치에 남아 있으며 하대갑석(下臺甲石) 밑에도 잘 다듬어진 기단 면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탑을 둘러싸고 있으나 모두 이탑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층 기단은 면석이 한 돌로 되어있으며 가

운데 탕주를 하나씩 양각하였다. 옥신석은 사방에 우주만 새기고 탕주는 없다. 1층 옥개석과 2층 옥개석도 한 돌로 되어있으며 2층 옥신석은 1층에 비해 높이가 매우 낮은 편이다. 신라 이래 보존되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오던 이 탑은 원래는 3층이었다고 한다 일제때 일본인들이 도파하여 파괴하고 탑속에서 나온 사리와 유물은 일본으로 가져가버리고 옥석 사리함만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이 사리함에 서기로 환산 867년이란 연대가 있어 신라후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잘 다듬었던 흔적이 보이는 맏돌, 주춧돌, 석축등 석재들이 사찰 주변 곳곳에 흩어져있는 것으로 볼 때 축서사는 상당히 큰 가람이었던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자연과 놀이에서 아이다움을 되찾아주는 어린이집

우지민 / 해오름 어린이집 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오름 어린이집 원장 우지민입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자연과 놀이,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해오름 어린이집은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에서 아이다움을 되찾아주고 해오름 어린이집을 실현시키고자 자연, 창의, 놀이를 모토로 설립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함으로써 즐거움과 만족감, 행복을 느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해오름 어린이집만의 풍부한 물리적, 문화적,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의 현장, 유아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교육의 현장의 역할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오름 어린이집은

“유아중심교육”

“자율성과 주도성 그리고 창의성을 추구하는 놀이중심교육”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더불어중심교육”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더불어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사회 발전에 공

헌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겸비한 바람직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오름만의 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신뢰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연구하는 발전하는 어린이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교육을 위하여 행복한 아이들의 해오름 어린이집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깨 힘줄 파열’에 대한 오해

김 형 건 인천힘찬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어깨가 많이 아프지도 않은데 어깨 힘줄이 파열됐다고요?” 어깨 통증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병원을 찾은 60대 L씨의 진단명은 어깨 힘줄 파열. 파열 크기가 커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팔도 쓸 수 있고 별로 아프지도 않다”며 “수술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느끼는 통증은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L씨의 사례처럼 어깨 힘줄의 손상 정도가 심하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에 말에 자신은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며 가우뚱하는 환자가 많다.

어깨 힘줄 파열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퇴화로 인해 파열되는 상태를 말한다. 어깨 힘줄이 파열되면 엄청나게 아플 것 같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또한 어깨 힘줄이 서서히 끊어지면 팔을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어깨 힘줄이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어깨에 걸해진 스트레스로 어깨 힘줄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끊어지기 때문이다.



손상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니 통증을 덜 느끼게 된다.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온도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뜨거운 물을 섞어 서서히 온도를 높였을 때 느끼는 체감 수온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신비한 우리 몸은 고장 난 부분을 작동시키기 위해 다른 부분이 더 힘을 내서 고장 난 부분을 채우는 보상작용을 일으킨다. 힘줄이 서서히 끊어지면 주변 다

른 힘줄이 보상적으로 두툼해져 끊어진 힘줄을 대신한다. 다만 이 보상작용을 ‘증상이 나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시적으로 다친 부분을 대신해 움직이게 되므로 다른 부위의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어깨 힘줄 파열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 크기가 커지고 팔에 힘이 없어져 결국 다시 팔을 들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힘줄 파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깨 힘줄 파열은 오십견과 함께 가장 흔한 어깨 질환 중 하나다. 오십견은 관절이 굳는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져도 꾸준한 운동으로 관절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와 달리 어깨 힘줄 파열은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 반복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힘줄 파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 오십견이라고 착각해 힘줄 파열

을 더 키워 오는 환자가 많은 이유다. 또한 자연 치유가 가능한 오십견과 달리 어깨 힘줄 파열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거나 파열을 방치해 남아 있는 힘줄이 오그라들면 봉합 수술이 불가능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 어깨 힘줄 파열과 오십견의 차이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팔의 근력 저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십견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팔을 일정 수준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한다. 반면 어깨 힘줄 파열은 강제로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통증을 느끼면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다. 또한 팔에 근력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 오십견과 달리 어깨 힘줄 파열은 팔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깨 힘줄이 물리적 충격이나 사고로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인해 끊어지는 경우는 열 명 중 한 명으로 드물다.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난다. 직업적으로 혹은 일상에서 어깨 움직임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극 없이도 노화로 인해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깨 질환이 퇴행성 질환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어깨 힘줄 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기 쉬우며 사람마다 통증에 반응하는 역치가 다름을 기억하자. 손상 정도와 통증이 비례하지 않으므로 선부른 판단으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신 참뜻은?

법왕사에서서는 지난 5월 12일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봉행 하였습니다. 이날 법요식은 3백여 불자들이 동참 한 가운데 오전 10시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봉축사, 법문, 발원문 낭독등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투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 새겨 참된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불법을 따르는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봉축사를 하는 주지스님
- ② 법당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불단에 예불을 올리고 있다.
- ③ 법왕사 원로이신 장백련화, 백대행심 보살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 ④ 법요식 행사의 백미인 육법공양 장면





- ⑤ 법요식에 음성공양을 하는 우담바라합창단원들
- ⑥, ⑦, ⑧ 축하공연
- ⑨ 관불의식을 올리는 아기 부처님상
- ⑩ 법요식에서 축사를 하는 전 거사림회장 정안식 거사

법왕사 소식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5월 12일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요식은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오전 10시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봉축사, 법문, 발원문 낭독등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투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참된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불법을 따르는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회 후 불자들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행하며 부처님 오신날의 참뜻을 새겼습니다.

해오름유치원 체험학습장 조성



법왕사에서는 부설 어린이집인 해오름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체험학습 공간을 일주문 부근 잔디밭에 조성하였습니다. 코끼리 석상 부근의 잔디밭 일정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여 어린이들이 각종 체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제51회 경로잔치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5월 1일 수요일 복지관 전시실에서 지역 어르신 3백여분을 모시고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고 흥겨운 잔치 한 마당을 베푸는 제51회 경로잔치를 봉행하였습니다. 법왕사 개원 이래 매년 두 차례씩 개최 온 경로잔치는 수성구와 남구등 법왕사 주변 지역 어르신들의 신나는 잔치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잔치에는 많은 불자들이 자원봉사자로 동참하여 행사를 더욱 뜻깊게 하였습니다.

불교용품 판매점 문열어



법왕사 불교종합복지관 앞에 불교용품 판매점이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 입구 오른편 빈 공간을 담장을 두르고 실내장식을 곁들여 아담한 불교용품 판매점으로 꾸몄습니다. 판매점에는 갖가지 염주와 단주, 목각제품, 방울등 불교용품과 생활소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복지관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마련하였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법왕사 경내 둘레길 조성



법왕사에서는 경내 풍광이 좋은 구간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산책 및 명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자관 광장 중간에서 본당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계단과 축대를 쌓아 쾌적하고 안전한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본당과 산신각, 더 나아가 대덕산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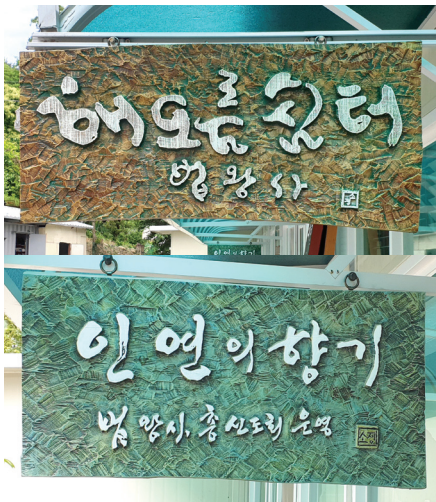
제3차 천일기도 봉행, 7월 17일 입재

법왕사에서는 오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제3차 천일기도를 봉행하는데 기도에 동참하실 불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족기도는 입재미 10만원이며 기도비는 90만원인데 매월 3만원씩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법왕사에서는 이미 두 차례 천일기도를 여법하게 회향한 바 있으며 매 기도에는 1백여 불자들이 빠짐없이 동참하였습니다.

무료급식 동참 및 후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무료급식에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동참 방법은 무료급식 울력에 동참해서도 되고 후원금을 내셔도 됩니다. 봉사활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급식 시간에 공양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 대구은행 505-10-203686-3 자비회로 하셔도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쉼터에 서각작품 간판 달아



법왕사에 새로 조성된 쉼터에 정감 넘치는 멋진 서각작품으로 간판을 달아 품격을 더하고 있다. '해오름쉼터'와 '인연의 향기' 두 간판은 법왕사에서 서각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소정 신임선 선생의 작품으로 품격있고 멋진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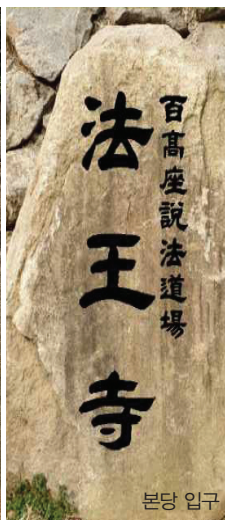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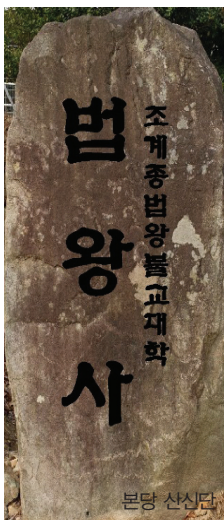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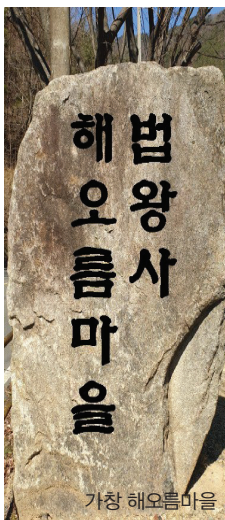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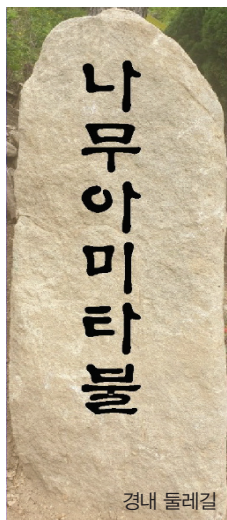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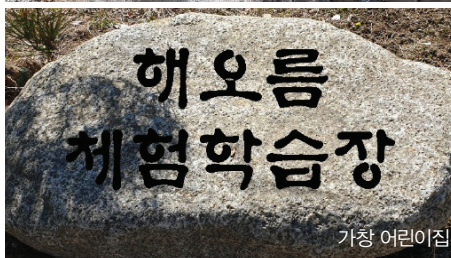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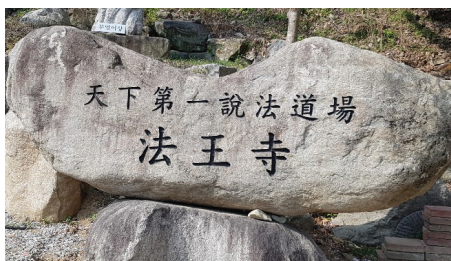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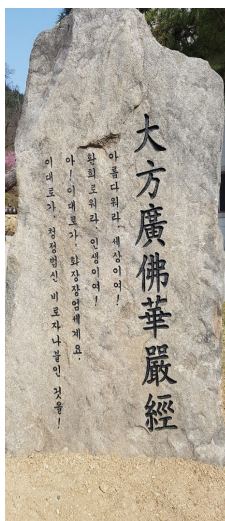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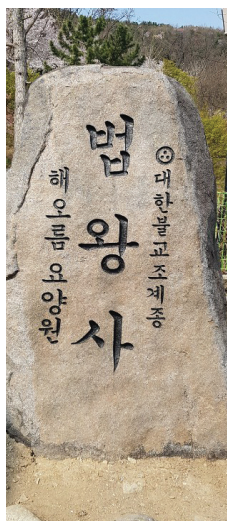
해오름어린이집 원아 및 직원 모집



법왕사가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개원한 율하동 해오름어린이집 개학을 앞두고 원아 및 교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원장 1인, 교사 2인, 운전기사 1인으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추신 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오는 6월 개학할 예정입니다.

법왕사 소식

법왕사 정체성 알리고 도량 장엄하는 법왕사 창건비문 불사 모연중



경내 돌레길

가창 해오름마을

본당 산신단

본당 입구

법왕사에서는 창건연기를 드러내는 비문 3점을 입구에 새로 설치하여 법왕사의 정체성을 알리는 역할과 함께 도량을 장엄하는 불사를 모연중입니다. 표지석 건립불사에 동참하실 가족은 1백만원이며 개인은 1인 5만원의 동참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석물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황용구 김학운 류영숙 조태섭 황홍석 강영일
박경태 황홍석 장영준 김이자 김진국 이민우

사보 도움 주신 분

경조스님 (사보도움 200부)

스님 승복

박서빈 성재윤

생활 필수품

구실상화 백월순

공양 올리신 분

◎ 경로잔치 공양 올리신 분

최홍규 조동선 성재윤 김광록 김하림 김윤옥
김수란 김남숙 김민지 이영애 김영웅 구실상화
신지원 이광진 이승현 이소원 박서빈 강정선
사공순옥 윤윤근 김상수 양봉률 양봉훈
권상태 이종량 김봉원 김창용 계해정 김주현
신정수 최차연 신장희 관음희 산신희 지장희
권경오 김보리 류윤만 권종오 홍분이 김종호

◎ 초파일 공양 올리신분

세광하이테크 이정상 김판돈 신창진 김영자
신지원 홍분희 권순예 권오삼 장정향 정원전설
정안식 박 옥 자비희 산신희 신장희 관음희
지장희 해오름요양원 최용석 조명희 우봉가든
서성배 이화꽃집 강정선 추순인 류현필 정민현
강준희 신현수 권춘자 박성률 유재은 박서빈
이광진 강시옥 김호연 전재술 심보현 김현석
여택동 고연숙 양문갑외 본당기도회원일동
김경희 류윤만 안준영 김순태 노수정 권효심
김태환 임인한 김경자 윤윤근 신현채 박경란

장재환 김기수 김순자 정근순 이종량 권상태
박재완 양봉률 양봉훈 김창룡 양혜진 양지영
백월순 신임선 박세민 김광록 장난희 손혁수
류윤만 이점예 이강복 조규인 이재우 안주선
김민지 김분용 최옥선 진불심 백대행심
이재학 구실상화

◎ 떡공양 올리신 분

앤디장 장영화 이종량 양복임 김호연

◎ 물품보시 올리신 분

우연혜(오색실 10류음) 신명균 백월순(대추)

◎ 공양미 올리신 분

정성훈 송영철 권태형 김현철 김인수 차운재
김윤옥 신종식

불사 올리신 분

◎ 산신인등 올리신 분

13 최규재 16 강지원 33 박종웅 34 박종건
78 이정훈 79 이승훈 214 최 봉 215 박지홍
216 최상아 196 권중훈 197 김정남 217 장재균

◎ 본당 인등 올리신 분

324 엄문학 325 엄성민 15 광승민 330 김동현
331 김민석

◎ 만불전 인등 올리신 분

309 亡황석용 293 亡유판선 60 亡윤상흠
61 亡윤병두 62 亡이장교 63 亡윤지원
64 亡장영옥 65 亡윤종목 310 亡이춘식
311 亡김덕자 312 亡이영철

◎ 문수보살 올리신 분

고연숙 정민술

◎ 비문불사 올리신 분

김오현 백보현행 김하균 김익균 김상수
이지송 김정호 김수연 백대행심 조광호
김영숙 배해동 박이자 박도정심 박남희
권순표 정 음

◎ 담장불사 올리신 분

신명균 구실상화 신승훈 신현수 신명재
송계화 김상수 신용홍 장정희 황아림 황상민
김나현 문선재 장수호 박상하 차미옥 박지홍
백대행심 정선규 정재왕 정성원 정성욱 정성인
김호연 김하균 윤건불심 최석돌 금중호 신정수
두 현 최용석 백장자 이지송 김경찬 정해웅
종 이 반 령 전성렬 임슬기 이지은 전잔향
은동엽 오지영 이세정 김수란 배상환 신웅균
배정현 정정관 최문영 최종열 김성진 김자택
오견덕화 안중현 안재현 안상현 박세학 박윤덕
이임보 이임수 권정윤 문용욱 강대웅 이창식
김찬욱 구정장 김대권 서동빈 김정환 전진홍
전상혁 권병우 김용환 박옥순 홍현모 문지수
심동섭 이정환 안주성 김주석 김재석 이정애
조재원 박정목 김인수 김나영 최병철 변성섭
김윤근 김대연 이진우 김정호 박남희 이석근
김수연

◎ 원불 올리신 분

3612 亡 서정준 3613 정기수

◎ 범종불사 올리신 분

최홍규 조원준 조성년 유정숙 김무열 손순희
김동규 김광우 하영재 초존권 조원일 조성혁
조준한 김종황 이영란 김근테 김민정 유옥순
양성옥 설동구 서기원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163 김광록(보등존자) 167 김희림 (선덕존자)

155 김태환(마제존자) 165 김찬우(조환존자)

◎ 33관음불상 올리신 분

이동택 홍영수

연등 올리신 분

◎ 1년 등 올리신 분

481 최준혁 482 도원우 483 최재훈 484 홍승민
485 김대영 486 최중호 487 권종목 488 이산재
489 박봉순 490 박재주 491 박정명 492 김종선
493 강동화 494 정상열 495 박철웅 496 김소조
497 장연준 498 강원석 499 서창욱 500 강영삼
501 박상근 502 김해연 503 전애란 504 이병훈
505 조철히 506 정경조 507 김광수 508 신주철
509 남상호 510 김영곤 511 강대철 512 강성태
513 차순사 514 고광철 515 김평국 516 진 휴
517 김돈수 518 조임조 519 장철영 520 박재민
521 오오백 522 김옥란 523 양수한 524 박상하
525 이범영 526 이종표 527 이종락 528 하병일
529 김승력 530 석응영 531 예진숙 532 신정순
533 류호진 534 강상조 535 고재욱 536 이정순
537 정한상 538 김금순 539 김경현 540 정의화
541 가창농업협동조합 542 박호향 543 송용훈
544 김종구 545 최제운 546 김정자 547 이치현
548 구영희 549 임재록 550 이경만 551 송정욱
552 이호규 553 김상한 554 박재영 555 최규철
556 안명희 557 이태석 558 김영복 559 장영우
560 최용석 561 김태란 562 이상승 563 김기억
564 김광렬 565 정동영 566 이재영 567 오진환
568 김세승 569 김도형 570 황부원 572 홍원진
572 박말순 573 안진미 574 김일선 575 김용식

576 김기현 577 이외순 578 장성용 579 김수근
580 김호동 581 김현환 582 유옥재 583 신원섭
584 이재후 585 동영유치원 586 마진창
587 이종대 588 강영일 589 문춘읍 590 황홍석
591 손양덕 592 서생배 593 최남석 594 박성근
595 박경태 596 권치호 597 이춘섭 598 박순국
599 정명숙 600 가창골 601 민병철 602 김영태
603 김진양 604 이광수 605 최상윤 606 이동택
607 한원길 608 박태남 609 강대웅 610 강신구
611 김이자 612 이갑진 613 권혜경 614 이상봉
615 김도엽 616 조만수 617 이재우 618 임우우
619 추재천 620 김두현 621 이영순 622 석대웅
623 유경수 624 손병성 625 성점순 626 한순복
627 이세정 628 채종달 629 변성섭 630 공현욱
631 최승원 632 장성수 633 전진무 634 황용순
635 조용호 636 조용호 637 전경식 638 안중욱
639 박정휘 640 송대웅 641 민정기 642 정연화
643 이희상 644 서영덕 645 장용기 646 김명수
647 양현영 648 권영세 649 김태순 650 김윤근
651 김재석 652 김상 훈 653 강대 웅 654 박성호
655 이원하 656 전미연 657 조기수 658 서재길
659 김창진 660 김용관 661 문동식 662 김영식
663 송홍점 664 김순덕 665 김복순 666 박군호
667 최승훈 668 장현목 669 박해일 670 박정길
671 이승희 672 김수현 673 이민우 674 정성도
675 오상야 676 이경섭 677 박호진 678 황성일
679 허전명 680 나완순 681 박진원 682 이정규
683 이상혁 684 김태현 685 곽영우 686 이기원
687 신사훈 688 이영환 689 이주영 690 박수식
691 이재봉 692 송화준 693 김지복 694 김상수

695 김인현 696 권오중 697 박창식 698 김영이
699 설동구 700 조상석 701 김병대 702 최상석
703 박순점 704 이돈식 705 이용호 706 장마리
708 이희동 709 권귀숙 710 이용원 711 성대성
712 이상규 713 장성수 714 오현미 715 우종진
716 공보경 717 김재엽 718 박경창 719 진경주
720 전태병 721 김찬수 722 양복임 723 손양익
724 김희열 725 임성범 726 박옥순 727 이치우
728 배용호 729 강상우 730 박정애 731 권태희
732 전석재 733 우진오 734 우동철 735 이상석
736 서주영 737 김진성 738 전형진 739 김진호
740 이흥근

◎ 영가등 올리신 분 [복위자]

78 이현국 80 김상우 81 하경순 82 안준영
83 이주애 84 권동희 85 채성백 86 김유창
87 현무훈 88 서정수 89 조현갑 90 김분용
91 이상훈 92 최용근 93 박경영 94 장영애
95 이석미 96 김종호 97 정신통 98 전효환
99 장삼술 100 전숙환 101 김유빈 102 정점순
103 조춘자 104 윤정순 105 최용숙 106 최영희
107 김미순 108 박정연 109 이영규 110 노동근
111 정인순 112 정경조 113 김진학 114 유종건
115 강대철 116 김이규 117 이철재 118 양수한
119 이정순 120 김경현 121 함형주 122 송용훈
123 우성국 124 김영우 126 홍순영 127 김세승
128 서규선 129 최미옥 130 조태성 131 송영철
132 강숙희 133 권치호 134 한원길 135 백영만
136 최병일 137 임미성 138 권범수 139 김옥분
140 신소익 141 유경수 142 정 돈 143 이세정
144 심동섭 145 최용식 146 김지혜 147 김철연

148 광역우 149 이현찬 150 은용기 151 위장욱

152 장마리 153 이용원 154 김기선 155 김희열

◎ 초파일등 올린신 분

1 이원석 2 신종수 3 신웅균 4 신현욱

5 신현섭 6 김영원 7 우종원 8 김종열

9 김순남 10 허준행 11 박삼순 12 신구자

13 이강복 14 김창혁 15 김상석 16 전효환

17 장삼술 18 이한국 19 최영봉 20 정동환

21 최영락 22 황복기 23 한금복 24 권병기

25 권순표 26 김현태 27 조준권 28 정인순

29 김상수 30 최인종 31 여석구 32 김순익

33 권춘자 34 조현준 35 김진구 36 송옥순

37 이창식 38 홍진호 39 김순태 40 권동오

41 이승재 42 박순규 43 김성연 45 신석봉

46 이우호 47 여정선 48 김상수 49 하경순

50 박종연 51 박태조 52 이말분 53 박천득

54 한정수 55 신종호 56 박영승 57 안영흠

58 신진우

◎ 단청등 올린신 분

9 조철제 50 임봉래 51 육법공양화원일동

52 삼성생명 권순례 53 전주맛집 전주수

54 창진금속 이길훈 55 영천석마노인요양원 이석미

56 최준영 57 청구도사막 권오섭

58 세기보청기 이희영 59 다산미디어 강영도

60 광진크레인 손말두 61 ㈜태성스틸 박재관

62 남호진 변호사 63 홍명진

64 와우노래방 홍종율 65 차목원 강해성

66 지성산업 정동영 67 서규선 69 정기은

70 안영준

◎ 본당 일년등 올린신 분

1 배성수 2 임영훈 3 김봉원 4 이재학

5 이보형 6 박근수 7 김철원 8 박무착심

9 김미순 10 김봉조 11 장점구 12 임재형

13 류영운 14 엄상길 15 장재균 16 차수경

17 차태원 18 이연희 19 전태영 20 장광철

21 최수한 22 김태식 23 오창덕 24 이상석

◎ 꽃등 올린신 분

119 조기석 120 박종기 121 최태식 122 최동훈

123 이순일 124 김필경 125 윤경옥 126 유세묘

127 이순옥 128 김영식 129 정봉영 130 전충훈

131 서정훈 132 박종거 133 남정오 134 성불행

135 박두리 136 심보현 137 이철재 138 전정관

139 장석순 140 강희목 141 홍영수 143 서윤수

144 황병옥 145 남정언 146 김윤경 147 김종국

148 김봉영 149 이영주 150 이노한 151 이임수

152 정영진 153 김하균 154 유유남 155 김옥분

156 연명식 157 권철통 158 이인보 159 차미희

160 홍창민 161 조태섬 162 최정훈 163 김동수

◎ 대등 올린신 분 분

16 낙원 떡집

◎ 본당대등 올린신 분

1 일심회 2 지장회 3 관음회 4 산장회

5 산신회 6 자비회 7 우담바라 합창단

8 해오름요양원 직원일동

9 난타 회원일동 10 육법공양 회원일동

◎ 일년 가족등 올린 분

370 이현국 371 이종석 372 이원석 373 김석균
374 정원구 375 정근순 376 심영선 377 박동숙
378 김진용 379 오옥희 380 임재현 381 임창효
382 김도엽 383 이동철 384 류우혁 385 백종구
386 안준영 387 권동희 388 원인스님
389 홍만기 390 객연향 391 채상백 392 채희재
393 김유창 394 이정우 395 신용술 396 신영준
397 앨뱅양 398 권달오 399 김병문 400 김진학
401 김정석 402 최홍규 403 임상천 404 이광진
405 황용구 406 김상자 407 배한업 408 김학윤
409 구자언 410 구자언 411 류영숙 412 김화자
413 권봉환 414 권기환 415 길연이 416 이대석
417 신재국 418 김재현 419 고재등 420 성철수
421 심재명 422 서재우 423 김일순 424 정무시
425 윤봉한 426 이종호 427 이경락 428 김태용
429 최충관 430 우인환 431 조병호 432 이태순
433 장영애 434 홍경호 435 피경호 436 황정희
437 한인숙 438 박일수 439 김승곤 440 김정선
441 조만호 442 박재용 443 도호천 445 박이용
446 오창혁 447 이현주 448 차운재 449 이재호
450 이재천 451 이상호 452 성일양초
453 포항농협 454 신윤환 455 류태수
456 김진환 457 정신동 458 김태욱 459 이문진
460 홍분희 461 용주사 462 김외환 463 일균스님
464 김 건 465 윤종수 466 도창종 467 김정석
468 홍대환 469 최재승 470 문운옥 471 김미순
472 김상태 473 이옥남 474 이수정 475 박정아
476 박정아 477 배복선 478 이보련하
479 이호철 480 강신원

◎ CMS 올린분

최종호 20,000 안진미 60,000 정연이 100,000
장미아 4,000 김성자 10,000 오현규 10,000
정재순 30,000 성점순 10,000 김명선 25,000
류윤형 15,000 오창혁 10,000 한천숙 10,000
김성미 5,000 심영선 15,000 최진석 5,000
김수라 30,000 전성복 10,000 사공순옥 30,000
백승연 3,000 김이규 6,000 김수남 3,000
현미숙 10,000 김현숙 8,000 김제순 10,000
정연이 8,000 서필희 10,000 전태일 50,000
강춘희 20,000 홍경숙 10,000 정순희 20,000
신인숙 5,000 황금석 7,000 김연자 10,000
손향숙 20,000 이호진 10,000 송순분 20,000
전재필 5,000 김옥자 10,000 김성미 5,000
장명희 5,000 김관용 5,000 조희선 20,000
강유주 10,000

왕생극락하옵소서

- ㄸ 함영봉영가님의 초재가 5월4일에 있었습니다.
- ㄸ 이종태영가님의 천도재 회향이 5월4일에 있었습니다.
- ㄸ 함영봉영가님의 기제사가 5월9일에 있었습니다.
- ㄸ 이춘석영가님의 기제사가 5월9일에 있었습니다.
- ㄸ 박영훈영가님의 기제사가 5월13일에 있었습니다.
- ㄸ 황용준영가님의 기제사가 5월14일에 있었습니다.
- ㄸ 유세묘영가님의 초재가 5월16일에 있었습니다.
- ㄸ 홍재성영가님의 막재가 5월19일에 있었습니다.
- ㄸ 사정준영가님의 막재가 5월22일에 있었습니다.
- ㄸ 배한규영가님의 천도재가 5월22일에 있었습니다.
- ㄸ 제갈동환영가님의 기제사가 5월23일에 있었습니다.
- ㄸ 강귀순영가님의 기제사가 5월28일에 있었습니다.
- ㄸ 김용현영가님의 막재가 5월28일에 있었습니다.
- ㄸ 이판술영가님의 기제사가 5월29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 요양원 소식



경로잔치 한마당

5월 1일 법양사에서는 대구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드시며 즐겁고 신나는 축하 공연단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또 노래자랑에도 참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경로잔치 한마당을 즐기셨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일곱빛깔하모힐링

일곱빛깔하모힐링의 아름다운 하모니커 연주소리가 해오름요양원에서 울려 퍼집니다. 어르신들의 노래와 박수가 서로 어울리며 얼굴 표정은 어느새 소녀가 되었습니다. 하모니커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어르신들의 마음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신을 축하 합니다

5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김숙자 어르신, 노진덕 어르신, 김해경 어르신의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께서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케이크와 다과를 나누어 드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달성아리랑보존회 공연

달성아리랑보존회사단이 한국무용, 국악, 노래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노래를 부르시고 박수도 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달성아리랑보존회 봉사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무하스님(웃음치료), 지은정(미술치료), 이정신·신계영(미술공연)

| 단체 정기봉사자 | 동그라미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달성아리랑보존회(수성구자원봉사센터),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HE봉사단(놀이치료),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어린이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앙상블공연단(공연활동), 일곱빛깔하모힐링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수선화(이미용봉사)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권순득	20,000	고재욱	20,000	김외환	10,000
김명옥	20,000	구정대	20,000	김용태	10,000
김순덕	20,000	권순미	10,000	김원형	30,000
김양순	20,000	권순영	10,000	김정규	5,000
김옥경	20,000	권순칠	10,000	김정숙	5,000
김진숙	20,000	권영철	5,000	김정순	30,000
김팔남	20,000	권오관	20,000	김정자	5,000
김희영	20,000	권오국	10,000	김진성	10,000
박정숙	20,000	권지현	20,000	남기웅	10,000
박창모	210,000	권춘자	30,000	남길호	10,000
서동남	20,000	금명섭	5,000	류윤만	10,000
석금옥	20,000	김경자	10,000	류환재(지월)	5,000
시명숙	20,000	김경호	10,000	문성섭	10,000
산귀화	20,000	김경희	20,000	박경란	10,000
양희숙	10,000	김기덕	20,000	박경자	5,000
윤윤근	20,000	김기수	20,000	박남희	30,000
이명숙	20,000	김대현	5,000	박대희	5,000
이소영	20,000	김만기	5,000	박동규	5,000
이영주	20,000	김명숙	10,000	박성숙	5,000
이윤정	20,000	김미자	10,000	박성은	5,000
이정자	20,000	김미정	10,000	박수진	10,000
정숙희	20,000	김민주	10,000	박순영	5,000
진윤아	20,000	김봉숙	5,000	박원태	15,000
최영희	20,000	김수곤	5,000	박인철	10,000
홍애분	10,000	김수라	10,000	박종규	10,000
황영희	20,000	김수자	10,000	박종환	10,000
강병철	10,000	김숙희	10,000	박희조	5,000
강소남	5,000	김순연	5,000	반통사	10,000
강영도	20,000	김영호	10,000	방지현	10,000
고연숙	10,000	김옥희	5,000	방지현	10,000

배수현	20,000	이복희	10,000	정시영	10,000
배하수	10,000	이성환	5,000	정연이	5,000
사공관	20,000	이승환	5,000	정영주	20,000
서준생(인재)	10,000	이옥자	10,000	정옥수	5,000
서찬수	10,000	이용옥	10,000	정인순	5,000
성기옥	10,000	이인순	5,000	정태교	5,000
손수연	10,000	이인순	5,000	정혜련	5,000
송정숙	5,000	이임숙	40,000	정혜숙	10,000
신구자	5,000	이재봉	5,000	조규인	10,000
신돈식	10,000	이전희	5,000	조성자	5,000
신종호	5,000	이정연	5,000	조영석	10,000
신화식	10,000	이정옥	10,000	조인성	5,000
심규암	5,000	이정화	10,000	진봉희	10,000
안경순	10,000	이정희	30,000	채옥연	5,000
안명희	10,000	이정희	5,000	최금부	10,000
안희선	10,000	이준우	5,000	최본규	10,000
양나영	5,000	이창수	10,000	최영희	10,000
양혜진	10,000	이현옥	10,000	최윤희	5,000
엄희섭	5,000	이호동	5,000	최지희	10,000
여미란	20,000	장민석	10,000	최창숙	5,000
여병문	10,000	장성규	5,000	최환중	10,000
여택동	5,000	장시원	10,000	한규매	10,000
오난옥	5,000	장우성	10,000	한희록	10,000
용마관음사	30,000	장재혁	5,000	허유미	5,000
유영희(자목원)	20,000	정경석	20,000	화변정(박남숙)	10,000
유명옥	10,000	정경숙	10,000	홍기학	10,000
이경자	10,000	정명선	20,000	황내환	10,000
이남희	10,000	정민경	10,000	황미선	20,000
이병희	10,000	정순옥	5,000		

합계 : 2,225,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박재용 3만원, 강미경 1만원,
임상덕 1만원, 이영주 3만원

◎ 지출내역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이크 구입비 : 76,000원
우편발송비 : 15,250원
물품구입비 : 427,900원
간식비 : 26,900원
경로잔치 : 500,000원

총지출 : 1,134,55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정희수 전효원 김옥희

◎ 후원물품 보내신 분

유세묘 보호자 : 키위 2박스
서운수 보호자 : 요구르트 50개, 우유 3통,
비피더스 30개, 커피 1박스
김숙자 보호자 : 커피 2박스

◎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사자

전효원 간호조무사, 김옥희 요양보호사

◎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소어르신

양일생 어르신, 윤두오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김필남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3차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7일(음력 6월 15일) 입재하여 2022년 4월 12일(음력 3월 12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기도의 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공덕 나누며 지혜와 용기와 원만성취를 함께 하겠나이다.

촛불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의식적인 행동의 중요함보다는 두 손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공덕으로 벗겨지고 씻겨진 참 모습을 원하오니 태우시고 씻기시어 육신이 거하는 또 다른 내가 지워지고 벗겨져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하사 모래알 같은 중생들이 팔만사천 부처님 법문 속에 몸과 정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제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 of 방을 통해 안정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돕게 하소서. 자비의 손길과 빛으로 그 마음을 쏘이시고 지극한 법향으로 지난 과오의 업을 지워 주소서. 신심으로 이 기도 to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신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공이 들게 하시고 윤행하는 행로 행로마다 부처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본이 되는 방정한 자세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법향을 풍기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기, 백고좌 법회도량 법왕사 불자님들이 천일기도의 념을 세웠습니다. 기도동참 불자님들의 중 소구 소원이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원만성취될 수 있기를 합장발원 올립니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음 6월 15일)
- 회 향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음 3월 12일)
-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하루 3만원(30개월)
- 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봉사단체 자비회 회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사중에서 각종 봉사활동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활동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기도 후 법문을 듣고 공양 후 사중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자격 남녀 구분 없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모임
- 무료급식 매주 수요일 11시 ~ 1시
- 무료급식 동참 계좌
대구은행 505-10-203686-3 자비회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서각

- 강사: 신임선 선생님
- 약력: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문화강좌
-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난타

- 강사: 김진규 선생님
- 약력: 대구 타악연구회 대표
국악 모듬 북 최고 지도자
-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회비: 3만원



색소폰

- 강사: 박성권 선생님
- 약력: 참사랑 색소폰 클럽 원장(현)
참사랑 문화예술 봉사단 단장(현)
달서구 찾아가는 문화마당 출연
청송군민 위한 음악회 출연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회비: 3만원





2019년 중국 불교성지 순례단 모집

법왕사에서는 2019년 초파일 직후 중국의 불교성지를 두루 탐방하는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참배할 성지는 중국 관음성지인 절강성 보타 낙가산, 지장성지인 안휘성 구화산, 문수성지인 산서성 오대산과 최근 새로운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난징의 우수산 불정궁입니다. 이미 2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선착순 15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일정 2019년 6월 12일 ~ 6월 20일(8박9일)

성지 보타 낙가산, 구화산, 오대산, 불정궁

회비 150만원 정도

인원 15명 선착순

(상단부터) 보타 낙가산 | 구화산 | 오대산 | 불정궁



법왕불교대학 특강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깊이 있는 불교 공부를 위해 '부처님의 생애'와 '아함경'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아함반은 30년 동안 아함경을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부처님의 생애 강좌는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 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관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함경

연담스님 | 제주 천제사 주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부처님의 생애'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불교기초강좌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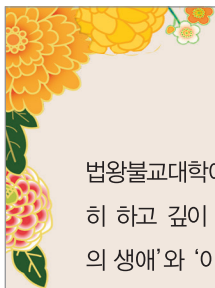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위빠사나 명상 강좌

도경스님 | 조계사 불교대학 강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시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수시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특강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반 2019년 3월 13일 개강 **중급반** 2019년 3월 20일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특강반	영일스님	부처님의 생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특강반	도경스님	위빠사나 명상 강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시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8시 30분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
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8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제38회 백고좌법회를 2019년 3월 30일부터 2019년 7월 7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68일차

6월 5일
화엄경
33. 불무사의 법품
34. 여래십신상해품
현석스님
파동 반야사 주지



• 72일차

6월 9일
화엄경
37. 여래출현품
원순스님
송광사·인월암 주지



• 79일차

6월 16일
화엄경 입법계품
① 문수보살
② 덕운비구
일진비구니스님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강주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64일차	6월 1일 田	주지스님	법왕사 주지	78일차	6월 15일 田	주지스님	법왕사 주지
65일차	6월 2일 回	원법비구니스님	운문 승가대학 교수사	79일차	6월 16일 回	일진비구니스님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강주
66일차	6월 3일 厶	주지스님	법왕사 주지	80일차	6월 17일 厶	삼현스님	거제 관음사 주지
67일차	6월 4일 因	금해스님	울주군 황룡사 주지	81일차	6월 18일 因	성산스님	선방정진
68일차	6월 5일 困	현석스님	파동 반야사 주지	82일차	6월 19일 困	해문스님	상락 선원장
69일차	6월 6일 困	효상스님	가창 선홍사 주지	83일차	6월 20일 困	계성스님	강화 법왕사 주지
70일차	6월 7일 囧	해피스님	한국 테라와 불교 선원장	84일차	6월 21일 囧	청암스님	칠곡 백운사 주지
71일차	6월 8일 田	주지스님	법왕사 주지	85일차	6월 22일 田	정영스님	군포 정각사 주지
72일차	6월 9일 回	원순스님	송광사 인월암 주지	86일차	6월 23일 回	지수스님	김천 금룡사 주지
73일차	6월 10일 厶	진오스님	경산 대국사 주지	87일차	6월 24일 厶	원일스님	대구 진명사 주지
74일차	6월 11일 因	도오스님	경산 경흥사 주지	88일차	6월 25일 因	현정스님	칠곡 대원사 주지
75일차	6월 12일 困	지안스님	양산 통도사 반야암 주지	89일차	6월 26일 困	관음재일	
76일차	6월 13일 困	해월스님	서산 수덕사 상주	90일차	6월 27일 困	가산스님	진천 원웅 호국사 회주
77일차	6월 14일 囧	만민스님	대구 만민 선원장	91일차	6월 28일 囧	주지스님	백중기도 입재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